

영 계 론

선문대학교 일어일본학과 교수 유 재 곤

차 례

1. 머리말
2. 영계 실재에 대한 원리적 근거
 - (1) 무형실체세계와 유형실체세계
 - (2) 피조세계에 있어서의 인간의 위치
 - (3) 육신과 영인체와의 상대적 관계
3. 말씀으로 본 영계
4. 이상헌 선생의 영계메시지와 영계론
 - (1) 영계에서 본 삶과 지상생활 보고서
 - (2) 통일원리세미나와 결의문 채택과 선포식
5. 청평의 영적 대역사 (생략)
6. 기존의 영계론
 - (1) 임사(근사)체험
 - (2) 수웨덴보리의 영계론
 - (3) 탄바 테추로(丹波哲郎)의 영계론
 - (4) <행복의 과학>의 영계론
 - (5) 먼로연구소의 영계론
7. 맺음말

1. 머리말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의문과 불안과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실상이다.

죽음은 ‘존재가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면 ‘ 또 다른 무엇인가의 시작인가’, ‘죽은 후 내세는 있는가.’, 만일 있다고 한다면 ‘그 세계는 어떠한 세계일까’라고 하는 의문을 둘러싸고 지금까지 많은 논쟁이 계속되어 왔다.

각 종교의 성직자들이 유물사상의 영향을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의 실체나 사후생(死後生)의 존속 등에 대한 올바른 영적지식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유물론이 낳은 고전적인 세계관, 인생관, 종교관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명예나 물질적인 부를 최 중요시하는 풍조가 계속되어 왔던 것이다.

또한 학자들 사이에 그와 같은 현상연구에 대해서는 과학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로 깊이 개입하지 말라고 하는 생각이 만연되어 왔다.

세상에는 과학적으로 존재가 증명된 것 이외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영혼이나 사후세계의 존재 등 증명되어 있지 않은 일들은 모두 거짓말이다, 환각이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과학이란 아직 너무나 초기적인 발전단계에 있고, 모르는 것이 많다.

과학은 원래 물질적 존재만을 다루고 있다. 우리의 의식 등 비 물질은 그 범주에 안 들어간다. 본래 물질, 비 물질이란 측면에서 파악해야 하는 것을 물질만으로 한정해서 세계를 파악해 온 것이 지금의 과학이다.

과학은 실험, 관측, 검증을 통해서 이론체계를 구축했지만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은 현상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 세상에는 과학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은 현상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학으로 모두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미신이 만연되고 있다.

과학은 여러 가지 일들을 분명히 해왔지만 가장 중요한 죽음 즉 영혼이나 사후세계의 존재 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해명해 오지 않았다.

2. 영계 실재에 대한 원리적 근거

영계 실재에 대한 원리적 근거는 『원리강론』 제 1 장 「창조원리」 중의 제 6 절 「인간을 중심으로 한 무형실체세계와 유형실체세계」에 있다.

(1) 무형실체세계와 유형실체세계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닮은 인간을 본으로 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마음과 몸으로 된 인간의 기본형을 닮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피조세계에는 인간의 몸과 같은 유형실체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의 주체로서의 인간의 마음과 같은 무형실체세계가 또 있다. 이것을 무형실체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리적 오관으로는 그것을 감각할 수 없고 영적 오감으로만 감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적 체험에 의하면 이 무형세계는 영적인 오감에 의하여 유형세계와 꼭 같이 실감할 수 있는 실체세계인 바, 이 유형, 무형의 두 실체세계를 합친 것을 우리는 천주(天宙)라고 부른다.

무형세계는 주체의 세계요 유형세계는 대상의 세계로서 후자는 전자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유형세계에서 생활하던 인간이 육신을 벗으면 그 영인체는 바로 무형세계에 가서 영주하게 된다.

(2) 피조세계에 있어서의 인간의 위치

첫째로, 하나님은 인간을 피조세계의 주관자로 창조하셨다.

인간을 창조하심에 있어서 유형세계를 느껴 그것을 주관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것과 같은 요소인 물과 흙과 공기로써 육신을 창조하시고, 무형세계를 느껴 그것을 주관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것과 같은 영적요소로써 영인체를 창조하시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인간을 피조세계의 매개체요 또한 화동의 중심체로 창조하셨다.

인간의 육신과 영인체가 수수작용에 의하여 합성 일체화함으로써 하나님의 실체대상이 될 때, 유형무형의 두 세계도 또한 그 인간을 중심으로 수수작용을 일으키어 합성 일체화함으로써 하나님의 대상세계가 된다. 그리하여 인간은 두 세계의 매개체요 또한 화동의 중심체가 된다.

셋째로, 하나님은 인간을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으로 창조하셨다.

영인체의 성상과 형상의 실체적인 전개로서 무형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인체는 무형세계를 총합한 실체상이다.

예수님은 영인체와 육신을 가진 완전한 아담으로 오셨던 분이였다. 따라서 그는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이었던 것이다.

(3) 육신과 영인체와의 상대적 관계

1) 육신의 구조와 그의 기능

육신은 육심(주체)의 육체(대상)의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다. 육신의 선행과 악행에 따라서 영인체도 선화 혹은 악화한다.

2) 영인체의 구성과 그 기능

영인체는 인간의 육신의 주체로 창조된 것으로서 영감으로만 감득되며, 하나님과 직접 통할 수 있고, 또 천사나 무형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무형실체로서의 실존체인 것이다. 영인체는 그 육신과 동일한 모습으로 되어 있으며, 육신을 벗은 후에는 무형세계(영계)에 가서 영원히 생존한다. 인간이 영존하는 것을 염원하는 것은 그 자체 내에 이와 같이 영존성을 지닌 영인체가 깃들여 있기 때문이다.

① 영인체는 생심(生心, 주체)과 영체(靈體, 대상)의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다.

생심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인체의 중심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영인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소(生素, 양성)와 육신으로부터 오는 (生力要素, 음성)의 두 가지 요소가 수수작용을 하는 가운데서 성장한다. 그리고 영인체는 육신으로부터 생력요소를 받는 반면에 그가 육신에게 돌려보내는 요소도 있는 것이니, 우리는 이것을 생령요소(生靈要素)라고 한다.

② 영인체는 육신을 터로 하여서만 성장한다.

생심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진리이다.

③ 영인체는 어디까지나 지상의 육신생활에서만 완성할 수 있다.

영인체는 육신을 터로 하여 생심을 중심하고 창조원리에 의한 질서적 3 기간을 거쳐서 성장하여 완성하게 되는데, 소생기의 영인체를 영형체라 하며, 장성기의 영인체를 생명체라 하며, 완성기의 영인체를 생령체라고 한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영인체와 육신이 완전한 수수작용을 하여 합성 일체화함으로써 사위기대를 완성하면 그 영인체는 생령체가 되는데, 이러한 영인체는 무형세계의 모든 사실들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된다.

영인체의 모든 감성도 육신생활 중 육신과의 상대적인 관계에 의하여 육성되는 것이므로, 인간은 지상에서 완성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체휼해야만 그 영인체도 육신을 벗은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체휼할 수 있게 된다.

④ 영인체의 선화도 육신생활의 속죄로 인하여서만 이루어진다.

⑤ 천국이든 지옥이든 영인체가 그곳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인체 자신이 정하는 것이다.

영인체는 육신을 터로 하여서만 성장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인체의 번식은 어디까지나 육신생활에 의한 육신의 번식과 함께 되는 것이다.

3. 말씀으로 본 영계

2001 년(천일국 원년) 1 월 13 일은 ‘하나님 왕권 즉위식’의 날이었다. 인류의 참부모로 인침을 받고 출발한 레버런 문(REV. MOON)이 형언할 수 없는 수난과 형극의 탕감복귀노정을 마침내 승리하고 완성한 터 위에서 봉헌해 올린 인류 최대 최고의 경사였다. 수만 년간 탄식과 한으로 점철된 생을 부모의 심정으로 섭리해 오신 하나님께 마침내 해방과 석방의 날을 봉헌해 올린 날이었다.

3 년 후인 2004 년 5 월 5 일 쌍합십승일(雙合十勝日)을 선포하셨다. 이 땅에 신천신지를 창건할 수 있게 될 후천개벽의 시대를 열어 주셨다. 이것은 바로 이 지구성을 하늘 앞으로 환원시키기 위한 역사적 대혁명의 출발이었다.

2006 년 6 월 13 일 ‘천주평화의 와 참부모님 천정궁 입궁 . 대관식’을 청평에 있는 천정궁에서 거행하셨다. 천주평화의 와이 영광된 등극을 하시는 이 행사를 역사상 전무후무한 경천동지의 섭리역사적 대사건이라고 하였고, 참석하고 있는 개개인의 머리 위에는 수천수만 명씩의 선한 축복가정 조상들이 임하여 함께 이 장엄한 순간을 경축하고 있고, 천지만물도 기뻐 함께 외치는 할렐루야의 찬송이 온 천주의 가득 울려 퍼지고 있다고 하셨다.

문선명 총재께서 2006 년 4 월 10 일 제 3 회 몽고반점동족연합 대회 때 하신 강연문 「천주평화통일완국 창건의 참된 주인」을 보면, “인간에게는 몸 위에 마음이 있고, 마음 위에는 영인체가 있으며, 그 영인체가 들어가 살게 되는 영계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은 참사랑을 통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될 때 완전한 사람이 된다.”고 하여 무형세계인 영계를 실존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해주신 인간의 영원한 본향”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영원하고 불변하신 분인 것처럼 당신이 창조하신 영계도 영원하고 불변한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유형세계인 현상세계의 축소체로서 육신을 창조하시고, 무형세계의 대표요, 주인으로 세우기 위해 영인체를 창조하셨다. 따라서 인간은 지상계에서 한 백년쯤 살다가 자동적으로 무형세계인 영계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현상세계요 유한세계인 지상계의 삶에서 육신을 터로 하여 영인체를 완성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다. 반드시 참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영인체가 결과 맺어지는 것이다. 인간은 육신을 쓰고 사는 지상계의 삶에서 완숙한 삶, 즉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 즐기며 살다가 가야 자동적으로 천상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다.

영인체는 반드시 몸과 마음의 원활한 수수작용으로 전개되는 육신의 삶을 터로 한 참사랑의 삶을 통해서라야 성장하고, 완숙하고, 완성된다.

인간된 의무와 책임은 걸 사람 된 육신의 유혹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속사람 된 양심의 길을 따라 인생승리를 달성해야 한다. 하나님의 창조에 의하면 영원한 스승 된 양심의 명령에 절대복종하며 살기만 하면 인간의 영생은 절대보장이 되는 것이다.

천국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참사랑이 충만하고 참사랑이 축이 되어 세워진 세계, 참사랑이 모든 환경권의 외형이자 내용인 세계, 삶의 시작과 끝이 참사랑으로 일관하는 세계, 누구나 참사랑에 의해 태어나서 참사랑 속에 살다가 참사랑의 품에 안겨 참사랑의 궤도를 따라 다음 세계인 영계로 옮겨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세계”라고 하셨다.

천국은 또한 “서로 서로가 위해주고 위함을 받는 자연스러운 세계, 한사람이 잘 되는 것은 전체를 대표해서 잘되는 것이요, 한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전체를 위해 좋아하는 것이요, 한사람이 기뻐하는 것은 전체가 함께 기뻐하는 그런 모습의 세계”라고도 하셨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참사랑을 위해 존재하시는 천국은 “참사랑의 공기로 꽉 차있는 세계, 참사랑을 호흡하며 사는 세계, 언제 어디서나 생명이 약동하는 세계, 구성원 모두가 참된 하나님의 혈연으로 인연되어 있는 세계, 온 세계가 우리 몸의

세포처럼 불가분의 관계로 엮어져 있는 곳이며, 하나님의 본질적 사랑인 참사랑만이 지배하는 세계”라고 하셨다.

세상과 영계는 하나의 세계로서 연결되어 있다. 인간은 육신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 있지만 영원한 세계 즉 영계를 향해서 가고 있다. 영계에 가게 되면 영계의 나라가 있으며 그 영계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성약의 말씀인 『天聖經』에 의하면 **영계**는 타락하지 않은 아담주의, 하나님을 중심삼은 아담주의, 아담주의 동시에 참부모를 중심삼은 하이어라키(hierarchy) 조직이며, 하나님이 사시는 본향 땅이고 모든 것이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으로 짝 찬 조화의 세계라고 한다.

영계에서는 사랑으로 얼마나 인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을 중심삼고 지어 준 피조물을 대할 때 하나님 같이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는 그것이 측정기준이며, 컴퓨터 이상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받은 사람이나 하는 것이 자랑이고 본연의 참사랑, 이것이 높은 급수의 사랑이며, 이것으로부터 급수가 결정되는 것이다.

문선생님이 영계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며 영계의 비밀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며, 영계를 몰랐으면 이 길을 못 가셨다고 하셨다. 말하자면 영계의 전문가라는 것이다.

<표-1, 『천성경』에 나타난 영계란>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하나님이 사시는 본향 땅이다.2) 우리의 고향 땅이다. 본연의 고향 땅이다. 이 땅은 본연의 몸뚱이의 고향 땅이고, 본연의 마음의 고향 땅이다. 본연의 고향은 무형의 세계이다.3) 사랑을 호흡하는 세계이다. 사랑의 영계이다. 사랑의 공기이다.4) 미지의 세계이다. 광대무변한 세계요, 무한확대의 세계이다.5) 영혼시대 천년만년을 영원히 살아간다.6) 참사랑의 결실을 보관하는 창고이다.7) 사랑의 열매의 세계, 사랑의 결실을 수확하는 곳이다. 참되게 사랑의 내용을 중심삼고 평가받는 세계이다.8) 방대한 천국이다. 본향 땅이요, 본궁이다. 우리가 살 본궁이다.9) 마음보다도 표면적인 세계가, 들어난 세계이다.10)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님과 같이 한 가정에서 살고 죽어서 그냥 그대로 옮겨가는 곳이다.11) 영계의 중심은 절대적 신을 중심삼고 구성된 세계이다.12) 참사랑의 개념으로 짝 차 있는 곳이다. |
|---|

- 13) 모든 것이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으로 꽉 찬 조화의 세계이다. 사랑의 전기로 충만한 곳이다.
- 14) 무한이 방대한 세계이기 때문에 몇 백만 리, 몇 천만 리의 이런 거리도 순식간에 사랑을 중심삼고 오고 갈 수 있는 세계이다.
- 15) 사랑이상으로 화한 하나님 앞에 상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생각하는 모든 것을 즉각적으로 실현화시킬 수 있는 세계이다. 몇 억 천만 명도 순식간에 벵퀴트(banquet) 준비를 할 수 있는 세계이다.
- 16) 하나님의 심정과 동급에 설 수 있는 심정을 가지면 무엇이든지 가능한 그런 장소인 곳이다.
- 17) 사랑의 전기로 충만한 세계이다. 영원한 요소를 원하는 영원한 곳이다.
- 18) 사랑의 성분으로 뒤덮여 있는 곳이다.
- 19) 통일된 세계고, 아주 아름다운 세계이다.
- 20) 이것의 절반의 세계이다. 육계도 절반의 세계이다.
- 21) 마음을 거울 같이 볼 수 있는 세계이다.
- 22) 영계는 모든 질서가 짜여진 세계이다. 이상세계인 동시에 딱 질서가 짜여진 세계인데, 사랑을 중심삼은 세계이다.
- 23) 지금까지 미지의 세계였다. 그 세계는 하나님의 존재원칙인 위하여 산 사람만 가는 곳이다.
- 24) 자기를 위해서 가는 사람은 못 가는 곳이다.
- 25) 참사랑을 중심삼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곳이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위해 사는 것이다.
- 26) 위하는 사람들이 가는 세계이다.
- 27) 무한한 세계이다. 우리를 포용할 고향은 그렇게 크다는 것이다. 영원한 고향, 영계는 정말로 지대한 곳이다.
- 28) 영계는 두 패로 되어 있다. 사탄세계하고 하나님 세계로 되어 있다. 영계의 사탄세계에서 선한 하나님 세계로 빨리 갈 수 있는 길만 내놓으면, 지상은 자연히 해결되는 것이다. 선한 세계와 악한 세계,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다.
- 29) 물질세계를 초월한 세계이다. 지식의 세계를 초월한 세계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있는 세계이다.
- 30) 오늘날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좋으나 싫으나 누구를 막론하고, 전부 다 돌아가서 머물 것이다. 거기에는 미개인으로부터 문명인까지 역사시대에 왔다 갔던 천태만상의 인간 군상들이 집결되어 있다.
- 31) 참사랑을 중심삼은 곳이기 때문에 영계의 왕은 한번 중심이 되면 영원이다.
- 32) 영계는 아직까지 미완성이었다. 본래 영계의 하이어나키 시스템(hierarchy system:계급체계)은 하나님과 참부모를 중심삼고 참된 자녀를 중심삼고 전 영계가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 있다는 것이다. 지상도 역시 안 돼 있다.

영계는 타락하지 않은 아담주의, 하나님을 중심삼은 아담주의, 아담주의 동시에 참부모를 중심삼은 하이이라키 조직이다.

지금까지 그 중심 안에는 불교를 중심삼은 석가모니클럽이 돼 있고, 공자클럽이 돼 있고, 이슬람 클럽이 돼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영계는 참부모주의와 아담주의가 나타나기를 모슬렘 패나 공자 패나 석가 패나 다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33) 영계는 천사장 세계고 지상은 아담세계이다.

<표-2, 『천성경』에 나타난 영계(저 나라)에서는>

1) 컴퓨터가 있어서 일생의 모든 기록이 나타난다. 자기의 기록이 백 퍼센트 컴퓨터에 들어 있다.

2) 사랑으로 호홉하기 때문에 지상에서 사랑을 중심삼고 생활해야 거기서도 자유롭게 호홉할 수 있다.

3) 참사랑이라는 똑같은 공식으로 되어 있다.

4) 그림자가 없는, 영원한 아침의 햇빛이 넘치고 있다.

5) 수직의 세계이다. 종적인 세계이다. 하나님을 중심삼고 원형을 이룬 세계이다.

6) 번식이 없다. 생산을 안 한다. (지상은 천국 백성의 생산지이다.)

7) 앞으로 영계에 가서는 자기 소유권이 뭐냐 하면, 하늘나라 백성을 얼마나 데리고 들어갔느냐 하는 것이다. 많은 아들딸을 키운 사람은 영계의 제일 높은 데에 있다.

8) 사랑의 자극적인 요소는 있지만, 죄악을 벗겨 줄 수 있는 탕감적인 요소가 없다.

9) 제일 싫어하는 것은 타락권을 중심으로 한 풍습, 즉 습관성이다.

10) 영원히 타락하지 않고 하늘나라의 가정을 이루어 살던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

11) 인간은 영계에 입적할 때 지상생활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한다.

12) 취미산업, 취미생활을 마쳐 가지고 영계에 가야 높은 영계에 갈 수 있다.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세계이다.

13) 상대를 중요시하고 전체를 위해 봉사, 희생한 사람이 높은 데 간다. 그것이 천국민의 공통된 성격이다. 천국 국민을 얼마나 많이 연결시키느냐에 따라 영계에서의 자신의 자리, 위치가 결정된다.

14) 고집이 큰 원수이다.

15) 시공을 초월하고 있기 때문에 1 초 동안에도 몇 억만 리를 갈 수 있다.

16) 마음 같은 생활의 세계인데 시공을 초월한 곳이다.

17) 비행기 없이 몇 백 광년 되는 세계를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한다.

18) 자기가 처해 있는 기준에서 모든 것을 보급 받을 수 있는 세계이다.

- 19) 이 지국성도 통할 수 있고, 이 물질세계도 마음대로 통할 수 있다.
- 20)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기 때문에 빛과 열로 나타난다.
- 21) 색깔이 없다. 너무 밝아서 은색 같이 보인다.
- 22) 제일 아름다운 나이 때의 모습으로 산다. 천국 가면 그렇다. 영원히 간다.
- 23) 사랑으로 화한 화신체는 더 아름다운 겁니다.
- 24) 사랑의 노래, 사랑의 말을 한다.
- 25)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다.
- 26) 아무리 먼데 있는 사람도 순식간에 만날 수 있고, 사랑 때문에 찾아갈 때는 순식간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 27) 저 나라에서 필요한 것은 세계보다도, 자기 나라보다도, 자기 아내보다도, 자기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또 사랑해야 된다.
- 28) 몇 억만 리의 거리에 있는 세계의 사람이라도 사랑의 마음이 강해 가지고 보고 싶다 하면 척 나타나는 것이다.
- 29) 지금으로부터 몇 백만 년 전, 8 백만 년 전, 1 천만 년 전에 산 사람도 와서 인사하는 것이다.
- 30) 자동차가 필요 없고, 비행기가 필요 없다. 순식간에 억 만 리라도 갈 수 있는 것이다. 태양 빛보다 더 빠른 것이 영력이다.
- 31) 그 집에 사는 사람이 급이 자기보다 낮다 할 때는 좋은 집이 있으면 그 좋은 집을 내 집으로 할 수 있다.
- 32)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게 되면 그 방대한 우주가 전부 내 것이 되는 것이다.
- 33) 사랑으로 얼마나 인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을 중심삼고 지어 준 피조물을 대할 때 하나님 같이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는 그것이 측정기준이다. 컴퓨터 이상이다. 저 나라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받은 사람이나 하는 것이 자랑이다. 본연의 참사랑, 이것이 높은 급수의 사랑이다. 이것으로부터 급수가 결정되는 것이다.
- 34) 누구나 90 각도가 되면, 동서남북 어디에 가더라도 켜까닥 켜까닥 맞다. 그것은 컴퓨터 이상으로 분석이 되 있다. 일주일 이내의 모든 배후까지, 비밀세계의 창고 밀창까지 들여다봅니다. 언어가 필요 없다. 마음에서 말하려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컴퓨터 할아버지 같은 세계이다.
- 35) 호흡할 수 있는 공기는 사랑으로 되 있다. 영계에서 주고받는 사랑은 참된 사랑인 것이다.
- 36) 원칙에 얼마만큼 동화되고 얼마만큼 일치가 됐느냐 하는 것이 지옥에서부터 중간영계, 낙원, 천국까지 전부 다 연결되는 것이다.
- 37) 아담과 해와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하고, 수천만 대의 후손인 여러분도 하나님을 대해서 아버지라고 하지요. 자기 아버지는 형님이 된다.
- 38) 모든 가정들이 참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계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피살을 먹고

영원히 사는 것이다. 사랑의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다. 하나님의 몸뚱이, 피살과 사랑을 나눠 받아가지고 사는 것이다.

39) 할머니 할아버지가, 쪼그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러분보다 더 예쁘다. 더 아름답다.

40) 여러분의 얼굴은 제일 아름다울 수 있는 20 대의 청춘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41) 사랑하는 사람은, 여자가 있으면 그 안에 떡 남자가 있는 것이다.

42)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43) 참으로 일심동체가 되는 부부는 언제라도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44) 참된 사랑을 하는 부부는, 하나님이 본성상과 본형상으로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계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본연적 기준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45)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화하고 인간은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다. 하나님화하는 것이다.

46) 서로 위해 주는 것이다. 역시 이상적인 사랑을 중심삼고 이것을 재현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47) 육계의 연장이다. 결국은 깊고 얇고 높고 낮고, 모든 면에 사랑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

48)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받은 사람이나 하는 것이 자랑이다. 본연의 참사랑, 이것이 높은 급수의 사랑이라는 것이다. 이것으로부터 급수가 결정된다.

49) 모두 다 청춘이 된다. 사춘기 제일 예뻐던 그 때의 모습으로 가서 머무른다.

50) 먹을 것 걱정 없다. 살 것 걱정 없다. 입을 것 걱정 없다. 자기의 심령상태대로 원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영적인 몸이지만 마찬가지로. 내가 무엇을 먹고 싶다 하면 대변에 나타난다. 근원세계를 동원할 수 있는 능동적 자주성을 행사할 수 있는 세계이다.

51) 우리는 마치 창조주이신 하나님 같이 온갖 종류의 것들을 참사랑의 개념을 중심삼고 창출해낼 수 있듯이, 사랑을 중심삼고 원래의 힘을 발휘하여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다.

52) 그 방대한 세계가 사랑을 중심삼고 전부 다 엮어져 있다.

53) 사랑의 마음으로 하면 모든 것의 출동이 가능하다.

54) 사랑의 공기로 충만한 곳이다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 땅 위에 있는 인식 구조를 가지고 찾을 수 있다.

55) 의식주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의식주는 완전히 자유자재이다. 사랑의 일치권, 하나님의 상대권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다.

56) 자기 인격 구조가 하나님의 대상적 가치기준을 가졌으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이다. 사랑의 동산에서 사랑의 세계에서 해엄치고,

사랑의 세계에서 그 모든 파장에 박자를 맞출 수 있는 생활의 훈령을 한 사람도 하나님 속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참사랑의 파장은 같기 때문에 상충이 안 벌어지는 것이다.

57) 하늘의 영원한 세계, 저 나라에 가게 되면 정치체제가 있는 것이다. 경제체제는 필요도 없는 것이다. 언제든지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은 전부 다 공급받게 되어 있다. 경제적인 것은 부차적인 문제이다.

58) 영계가 얼마나 좋은지는 말로 다 할 수 없다. 거기에는 의식주가 염려 없는 곳이다. 사랑을 중심삼고 완성한 안격기준에 따라서 그의 상대적 환경 요건을 자유롭게 보급 받을 수 있다.

59)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은 이상이 백방으로 실현되는 곳이 영계이니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취해서 산 사람들이 주도적인 입장에 서는 것이다.

60) 원소를 마신다. 쓰레기통이 없다.

61) 돈이 필요 없다. 지식이 필요 없다. 권력도 필요 없다.

62) 천상세계에, 무한한 세계에 수백억 인류가 살고 있다. 거기에 가면 안 만나는 사람이 없다.

63) 오직 하나님의 힘의 근원이시다. 그곳이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다.

64) 저 나라에서는 권력이 필요 없다. 영계는 사랑을 중심삼은 화합력이다. 사랑을 중심삼은 감화력이다.

65) 이 우주의 모든 것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 영계도, 만물도 전부 다 사랑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다. 참사랑을 중심하고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

66) 교육이 필요 없다.

67) 말 같은 것은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일주일 내에 모든 것을 아는 것이다.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전부 안다. 말을 하기 전에 전부 아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다.

68) 영계의 조직이 뭐냐 하면, 생활을 중심삼아 가지고 전부 다 계열이 되어 있지, 정치라는 것은 없다. 경제 평준화 운동을 중심삼고 어떻게 잘 사느냐 하는 것이다.

69) 사랑으로 호흡한다.

70) 영계는 공식적인 법도에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권내로 들어올 수 있다는 원칙을 알게 될 것이다.

71) 마음 맞는 형제들끼리 모여 산다. 완성된 사람이 영계에 들어가게 되면 어디에 가더라도 친구이다.

72) 높은데 가는 사람들은 남을 위한 사람들이다.

73) 사람들이 여러 단계의 처소에 머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사랑의 도리를 따라 효도를 다 했느냐, 나라에 충성을 했느냐, 세계에서 성인의 도리를 다 했느냐 하는 도수의 차이에 따라 해당하는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74)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먹지 못한다. 먹을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75) 세계는 혼란하다. 혼란한 인간상들이 영계에 가서 뭉쳐 있으니 영계는 혼란하지 않을 수 없다.

76) 욕심 많은 사람은 내려가는 것이다. 무겁다 이것이다.

77) 선한 영인들과 악한 영인들이 투쟁하고 있다. 영계에도 투쟁이 있다.

78) 살인한 자, 죽임을 당한 자, 별의별 사람이 한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칼부림도 나고 복수하려고 하는 일도 벌어진다. 그러니 수많은 담이 막혀 있다.

79) 영계에 가 있는 모든 영인체들은 결국은 지상에 살던 사람들의 영인체이다. 그렇게 보게 되면 오늘날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과 별 다름이 없는 세계라는 것이다.

80) 영계에 가 있는 수많은 영인들도 전부 근본은 하나이다. 출발해서 결국은 영계에 가서 머무른다는 것이다.

81) 영계를 중심삼고 보면, 악한 영이 있음과 동시에 중간 영이 있고, 선한 영이 있다.

82) 영계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땅 위에 그러한 사람이 호소하면 영인들을 동원하여, 천국이념의 실현을 위한 지상의 일에 협조하게 된다는 것이다. 영계의 영인들이 이 땅에 오지 못하는 원인은 이 땅이 탄식의 울타리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83) 영계가 이제 지극히 가까운 거리에 왔기 때문에 선한 영인들이 지상에 정주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와서 산다는 것이다.

84) 영계는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영계의 영역은 끝이 없다.

85) 영계에 있는 여러분의 조상들도 이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자랑스러운 후손들에게 협조하고 싶어서 지상으로 내려오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조상들이 여러분의 주위에 내려온다. 이것은 종족을 중심삼은 종파를 초월한 종교세계이다.

86) 지금까지 부모님에 대해 영계가 지지를 못하는 이유는, 완전한 부모의 자리는 타락한 영계가 협조할 수 없는 자리이다.

87) 영계가 내 손에 달렸고, 친척이 내 손에 달렸고, 친척뿐만 아니라 나라가 내 손에 달렸고, 앞으로 올 후손 앞에 올바른 전통을 세워 놓아야 할 것도 내 손에 달려 있다. 이것을 언제나 생각해야 된다.

88) 변소에 가서 앉아 있으면 영계에서는 ‘야, 너는 오늘 무엇, 무엇을 해라!’ 하고 프로그램을 전부 다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런 멋진 사실들이 벌어져 나가는 것이다.

89) 영계가 협조하는 것이다. 영계가 협조해서 그 일족 친척 전부, 가까운 무리

전부 모아서 여러분 앞에 끌어넣는 것이다.

90) 이제 여러분의 조상들이 협조하게 돼 있다. 옛날에는 나쁜 조상들이 후손을 이용해 먹었다. 그러나 이제는 선한 조상들이 내려와서 활약할 수 있는 때에 왔다.

91) 지상인의 도움으로 승진하는 영인들은 현재의 자기의 위치에서 더 나은 위치로 옮겨가므로 자기 삶이 편안해지며, 지상에 있는 후손들의 삶 또한 평화스러워지는 것이다.

92) 내가 그들에게 연구해 보라고 한 것은, 이제 과학이 첨단에 와 있기 때문에 영계와 접선할 수 있는 주파수를 연구하라고 했다. 영계의 작용이 전부 다 진동에 의해 가지고 이뤄진다는 것이다. 진동수를 통해 연개와 연락할 수 있는. 영통인의 진동수를 발견해가지고 영계를 과학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연구하라고 하였다. ... 미지의 영계를 합리적으로 다 알 수 있는 시대에 가면 종교사대는 다 끝나는 것이다. 인류는 하나님을 믿지 말래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시대가 된다.

93) 영계를 수습 못하는 사람은 천하를 통일 못하는 것이다.

94) 아담과 헤와가 가정의 왕이요, 종족의 왕이요, 민족의 왕이요, 국가의 왕이요, 세계의 왕이요, 천주의 왕인 것이다. 그래서 영계에 가서는 하나님 대신자가 되는 것이다.

95) 자식 번식을 못 합니다. 종적이기 때문에 영계에 가서는 아들딸을 못 낳는 것이다.

96) 영계에 가게 되면, 선생님이 전부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몸이라는 것이다.

97) 이 사람은 영계의 전문가이다. 아마도 역사 가운데에 영계를 개문하는데 있어서, 이론적 기반으로써 영계를 교시하고, 체계적 내용으로 밝혀 준 원조가 문총재다 하고 이름이 남을 것이다.

98) 영계에서도 관심은 선생님 외에는 없다. 부모님 외에는 없는 것이다.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요, 사랑의 근원이요, 양심의 근원이요, 모든 것의 근원이다. 거기를 통하지 않으면 크지를 앎다.

99) 참부모를 잘대로 필요로 하고 있다.

100) 지금 영계는 형태를 갖고 있지 않다. 참부모에 의해서 형태를 갖게 되는 것이다. 영계축복과 더불어 천지종합지상천국 통일 사랑의 주권세계 선포를 하게 되면, 선생님이 부모의 형태를 가지고 영계를 주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다.

4. 이상헌(李相軒) 선생의 영계메시지와 영계론

이상헌선생은 1914 년 9 월 5 일 유교가정에서 태어나 연희전문대학(현 연세대학교) 졸업 후 의사로서 근무하셨다가, 1956 년 통일교회에 입교하신 후 36 가정축복을 받고, 참부모님의 사상인 「통일사상」과 「승공이론」 등을 체계화하셨다.

이상헌 선생은 학술세미나나 교수세미나에서 어떤 질문이든지 통일원리나 통일사상 말씀을 가지고 답변을 다 할 수 있었는데 질문이 막히는 부분은 영계에 대한 것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언젠가는 영계론을 꼭 집필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곤 하였다고 한다.

『천성경』에 의하면,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상헌 선생이 영계에 간 것입니다. 영계의 사실을 전부 다 지상에 알리기 위해 섭리의 뜻 가운데서 갔다고 보는 것입니다. 영계전체를 알려면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접붙여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부 다 체계화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지금까지 영계가 그럴 수 있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종교가 나와 가지고 영계의 사실을 소개했다고 해도 그것이 일부분이고, 그 종교의 내용을 중심삼고 가르친 것이지, 전체를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약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영계전체의 양상을 지상에 설명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었다.941

이상헌 선생은 지성인들에게 영계의 삶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한다고 당부하셨다.

“지성인들에게는 자기의 전공분야도 중요하지만 영계의 삶도 영구해야 한다고 전해 주세요. 이곳 영계에서는 자기의 전공분야이나 자기가 쌓은 지성이 최고라고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하시며 많이 우셨다고 한다.

이상헌 선생이 이영순 여사를 통해서 보내온 영계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1) 영계에서 본 삶과 지상생활 보고서, (2) 통일원리세미나와 결의문 채택과 선포식이다.

(1) 영계에서 본 삶과 지상생활 보고서

우선 통일사상이 아버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원적인 사상이라고 하여, “나는 지상에서 영계에 왔으나 참부모님의 사상을 접목시키는 일 외는 관심이 없다. 그것은 참부모님 사상보다 더 차원 높은 사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라고 하셨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 여기 이 나라라도 하나님은 안 보여. 그러나 저 태양의 광채보다 더 밝은 이 찬란한 빛, 황홀한 빛은 인간의 두뇌, 지성, 이성으로는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하셨다.

이상헌 선생은 “앞으로 이 방대한 영계의 모습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김영순) 사모님께 전할 것이다. 내가 이것에 온 이상, 궁금했던 무형세계를 교수사회에 면밀히 알리겠다.” 고 하여, “영계는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와 똑 같은 것 같으나 영계의 그 방대한 규모가 지상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 하셨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세계는 아무 것도 아닌 순간의 세계임을 명심하라는 것이었다.

天國이란 생각과 행동이 바로 하나 되는 곳이고, 보석보다 더 밝은 광채가 항상 주위에 있는데, 그 밝은 광채 때문에 서로의 어려움을 가릴 수가 없고, 서로가 읽게 되니까 눈으로 맘으로 다 알게 되는 곳이다. 또한 천국은 항상 마음이 화평할 수밖에 없는 곳이고, 어려운 것도 없고, 불편한 것도 없고 배고픈 것도 없는 곳이다. 천국은 바로 밝고, 사랑의 지성소요. 사랑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창조목적의 근본을 다 이루어 나가는 곳이다.

이에 반하여 地獄은, 하나님의 근본이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곳이고, 사랑을 등진 곳, 사랑이란 글귀가 짝도 띄지 않은 곳이다. 배고프고 고달프고 시기, 질투, 불편한 것이 너무 많은 곳이고, 항상 고달프니까 싸움밖에 할 것이 없다, 모두 불편하니까. 항상 불행한 모습들을 하고 있다.

이상헌선생은 지상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우선 참부모님의 지상생활은 많은 자식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기간이다. 지상생활은 인간이 영계에 오기 전에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생활 그 자체가 이곳 영계에 기록되어 가는 과정이다. 영계인은 지상생활을 터전으로 하여 자기의 삶의 위치가 결정된다.

다음으로, 영계인은 육제적인 제약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활동범위가 무한하다. 자기의 본능이 생각하고자 하는 즉시 상대방에게 전달되므로 특별한 언어 표현이 필요 없는데 반하여, 지상인은 한정된 공간 속에서 한정된 시간의 제약을 받으며 살아간다.

또한 영계인은 영계의 세계에서 제약하는 방해물이 없으므로 무한히 자유스럽다. 의식주의 문제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없으니 무한히 밝고 겸손하다. 지상에서 선한 생활, 악한 생활의 기준에 따라 영계에서 자기가 가야 할 영원한 자리가 정해진다.

이 나라에는 스스로 해결하는 죄의 탕감방법은 없다. 영계법에 한번 걸리면 쉽게 풀 수 없으며, 이곳 영원의 나라에 와서 또 고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생은 영원의 삶을 위하여 순간의 고생을 피해가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항상 영원한 세계에 초점을 맞춰서 생활하거나 지상의 삶을 정리하면서 사는 삶이 현명한 인간인 것이다.

이상헌선생이 끝으로 주신 말씀은 “영계법은 지상처럼 에누리가 전혀 없다. 그렇다면 이 법도에 걸리지 않은 기준은 천상의 삶이 아니고 지상의 삶이다. 항상 영계의 삶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 내가 가야할 영계는 어딜 것인가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만약 이 법도에서 이탈되면 내 영혼이 가야 할 것은 천도에 따라 그대로 뒤통에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 지상의 삶을 잘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었다.

통일영계권에 대해서는 통일영계권이란 이름이 생겨났던 것은 영계에 통일식구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 통일식구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일반인들이 머물고 있는 영계권과 다르다. 그러나 애처롭게도 통일영계권에도 머물지 못한 식구들이 많다.

참부모님께서 “영계의 실상을 살살이 밝혀라” 하는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함이니 지상에서 죄를 청산하고 오기를 바란다. 길지 않은 지상생활에 미련을 두지 말고 영원한 세계를 위하여 살아 주기를 바란다.

여러분은 이런 영계의 실상을 자세히 듣고 지상생활에서 죄를 깨끗이 청산하고 이곳 하류층에는 절대로 오지 말기를 부탁한다. 참부모님의 가르침에 절대순종, 절대복종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지상에서 깨끗이 탕감하고 오소서. 지상에서는 죄의 탕감방법 즉 해결책이 있지만 천상에는 탕감법이 없다고 강도하셨다.

통일영계권의 상류층, 중류층 그리고 하류층의 모습은 도표와 같다.

<표-3, 통일영계권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상류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매우 화려하다. * 이곳에 사람들은 찬란한 광채 속에서 모든 피조물과 서로 화동하며 피조물의 주관주로 살아간다. * 하나님과 함께 부부의 사랑, 부모의 사랑, 형제 . 자녀의 사랑 등이 항상 충만한 행복한 세계이다. * 오직 대 통일영계권의 상류층 사람만이 하나님의 화려한 광채 속에 살아갈 수 있다. * 하나님의 창조본연의 세계가 이루어진 세계이다. * 이 세계는 인간을 위시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기쁨과 평화와 통일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세계이다. * 자기의 죄목이 노출된다.
-----	--

중류층	<p>* 외관상으로 볼 때 지상인의 생활과 비슷하다.</p> <p>* 의식주의 해결이 만만치 않아서 개개인의 노력의 대가에 따라 먹고 살 수 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만남도 쉽지 않으며, 피조물의 모습에 있어서도 지상의 식물 . 동물 . 광물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p> <p>* 여기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특혜가 있고, 천지부모를 만날 소망도 있고, 언젠가는 그들 모두가 상류층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p>
하류층	<p>* 하나님의 섭리와 역행한 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p> <p>* 타락론에 관련된 자의 광경 : **남녀문제에 연루되어 짐승 같이 살았던 자의 성기에서는 피고름이 나오고, 욕창이 나서 아파 신음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 유부남과 잘못된 여자는 자식들 앞에서 그 행위가 노출되고 있으니 숨을 것을 찾기 위해서 나뭇잎 사이로 도망가고 가도 ...그의 자식들은 우리 부모를 저주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p> <p>* 공금에 손을 댄 자의 모습은 ** 그 공금이 도끼가 되어, 공금과 도끼가 하나의 무기가 되어 그가 가는 곳마다 그를 사정없이 내리치고 있다. 그는 항상 돈 세례, 도끼 세례를 받으면서 그걸 피해가며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p> <p>* 참부모님의 뜻을 알면서 참부모님에게 대적한 자의 모습은 ** 그들의 입술은 돼지주둥이 같이 튀어 나와서 부르터 있고, 그들의 배는 임신부와 같이 통통 부어서 터질 것 같다.</p> <p>* 뜻을 따라 나오면서 '원리'가 좋아서 이 길을 가겠다고 다짐해 놓고도 세상 길로 간 자는 ** 소금기둥처럼 두발이 굳어져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p> <p>* 지상에서 물질에 욕심을 부린 자는 정말 불쌍하다. ** 이곳에서 그는 무엇을 계속 먹고 먹어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옆으로 터져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먹고 있다. 그는 남에게 구걸하거나 남의 것을 훔쳐 먹는 거지와 도둑의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창자를 움켜쥔 채 무엇을 계속 먹고 있다.</p>

(2) 통일원리세미나와 결의문 채택과 선포식

유엔본부를 비롯해 세계 각지, 즉 지상에서 세계평화의 튼튼한 기반을 마련한 터 위에 문선생 양위분은 200 년 10 월 14 일 영계의 모든 담을 철폐하고, 특히 종교권을 통일할 수 있는 영계 해방식을 선포하였다.

그 후 예수님을 비롯한 4 대성인들과 소크라테스, 성 어거스틴이 등 성현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란 주제로 영계세미나(보고서는 2001 년 2 월 12 일~4 월 11 일)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기독교, 불교, 유교, 이슬람교 등 4 대 종단 및 신은 없다고 부정하였던 공산주의 지도자 각 120 인의 통일원리 세미나(보고서는 2001 년 8 월 27 일~2002 년 5 월 9 일)를 개최하였다.

이어서 세계적 언론인 12 인과 미국언론인 대표 40 인의 통일원리세미나(2002.5.14 ~2003.10.12)가 개최되었다.

더 나아가 섭리국 7 개국 즉 미국정치가(미국 역대 대통령 36 인, 2002.6.8~2003.8.1), 한국정치가(고려 역대국왕 11 인, 조선 역대 국왕 27 인, 대한민국 대통령 2 인, 2003.10.27~2004.1.26), 일본 정치가(천황 및 태자 2 인, 정치 지도자 40 인, 2004.2.2~2004.5.7), 영국 정치가(정치 지도자 대표 12 인, 2004.6.18~2005.6.22), 독일 정치가(정치 지도자 대표 12 명, 2005.7.6~2005.10.15), 프랑스 정치가(정치 지도자 12 인, 2005.11.12~2006.2.15), 이탈리아 정치가(정치 지도자 12 인, 2006.3.22~2006.4)들에 대한 통일원리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여기서 보이는 120, 40, 12 수 등은 하나님의 섭리를 승리로 이끌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숫자들이다.

통일원리 세미나에 참석한 4 대성인과 종교인, 공산주의자, 언론인, 정치가들은 결의문 채택과 선포식을 가졌다. 그 내용은 크게 나누어서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이시고, 전 인류는 한 형제자매이다.

둘째, 문선명 선생은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님, 참부모, 평화의 왕이시다.

셋째, 통일원리는 인류구원을 위한 평화의 메시지요, 성약시대의 복음서이다.

넷째, 천주평화통일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초종교, 초국가, 초인종의 ‘위하여 사는 생활’을 통하여 완성한다.

다섯째, 영계(영원한 천상세계)는 실존한다.

「UN 에 보내는 하나님의 메시지」(2004.8.1. 0 시)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인류의 부모’이며 인류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셨고, 또한 UN 의 각성을 호소하셨다. 인류평화는 무력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인류에게 특별히 내 사랑하는 아들, 문선명 선생, 참부모를 인류의 메시아로 보냈으니 그 분을 믿고 그의 사상으로 뭉쳐보라.”고 강조하셨다.

「이상헌 선생이 참부모님께 올리는 글」(2005.6.22)에서는 이상헌 선생은 “아직 리포트 하지 못한 국가의 지도자들은 영계 메시지, 원리강론, 말씀집 등을 매일 혼독하며, 부모님의 업적 등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모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왕국 건설의 기준에는 너무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늘

죄송함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부모님께서 원하신 기준에 부응하여 하나님의 왕국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며 매진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하셨다.

<표-4, 이상헌 선생이 영계에서 보낸 메시지>

합본판	
『영계의 실상과 지상생활』	영계의 실상과 지상생활 (1) 인류의 범죄자 누시엘 (2) 인생이 마지막 가야 할 길 (3) 천상천하의 구세주 참부모님 (4) 영계에서 온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 (5)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	천상의 비밀과 석가모니 메시지 (7) 4 대 성인, 어거스틴과 소크라테스의 영계해방식 축하메시지 공자의 메시지와 4 대성인 영계세미나 (8)(9) 영계에서 온 사도 바울의 편지 (10) 4 대 종단 및 세계 공산주의 지도자 각 120 인의 통일원리세미나 보고서 기독교 120 인의 통일원리세미나 보고서 유교 120 인의 통일원리세미나 보고서 불교 120 인의 통일원리세미나 보고서 이슬람교 120 인의 통일원리세미나 보고서 공산권 120 인의 통일원리세미나 보고서 5 대 종단 및 세계공산주의 지도자 결의문 채택과 선포
『천. 상. 세. 계. 의. 실. 상.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	영계의 세계적 언론인 통일원리 세미나 보고서 (19) 세계 언론인 대표 12 인의 메시지 미국 언론인 대표 40 인의 메시지 결의문 채택과 선포 영계의 미국 정치가 통일원리 세미나 보고서 I (20) 미국 역대 대통령 36 인의 평화 메시지 UN 에 보내는 하나님의 메시지 영계의 한국 정치가 통일원리 세미나 보고서 II (21) 고려 역대 국왕 11 인의 메시지 조선 역대 국왕 27 인의 메시지 고려 . 조선 역대 국왕 결의문 채택

	<p>대한민국 대통령 2 인의 메시지</p> <p>영계의 일본 정치가 통일원리 세미나 보고서Ⅲ (22)</p> <p>일본 천황 및 태자 2 인의 메시지</p> <p>일본 정치 지도자 40 인의 메시지</p> <p>결의문 채택과 선포</p> <p>영계의 영국 정치가 통일원리 세미나 보고서Ⅳ (23)</p> <p>영국 정치 지도자 대표 12 인</p> <p>이상헌 선생의 메시지</p> <p>영계의 독일 정치가 통일원리 세미나 보고서Ⅴ (24)</p> <p>독일 정치 지도자 대표 12 인</p> <p>영계의 프랑스 정치가 통일원리 세미나 보고서Ⅵ (25)</p> <p>프랑스 정치 지도자 대표 12 인</p> <p>영계의 이탈리아 정치가 통일원리 세미나 보고서Ⅶ (26)</p> <p>이탈리아 정치 지도자 대표 12 인</p>
	영계에서 온 사도 바울의 편지 (10)

5. 청평의 영적 대역사 (생략)

천총관(天總官) 홍진님과 대모님의 대역사로 조상해원식과 조상축복식이 거행되어 영계에는 벌써 3,000 억 인의 절대선령들이 태어났다.

6. 기존의 영계론

(1) 임사(근사)체험

임사(근사)체험이란 사고나 병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이 겨우 살아나서 의식을 회복했을 때 말하는 불가해한 이미지 체험이다.

1) 腦內現象說 - 모든 것이 물질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一元論

임사체험이란 삶의 최종적 단계에서 쇠약해진 뇌 속에서 일어날 특이한 환각에 불과하다.

근대적인 과학적 세계관에 의하면 인간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필경 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경세포의 전기적 활동, 혹은 화학적 활동으로 환언될 수 있다.

임사체험이란 것도 죽음의 직전까지 몰린 사람의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경세포의 특이적인 활동의 소산이며 그 이상 것이 아니다.

엔도르핀이란 뇌내 마약물질이 임사체험에서의 행복감, 황홀감을 설명해 줄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학설도 있다.

뇌에 대한 연구를 진행만 하면 인간존재의 수수께끼, 인간의 의식세계의 수수께끼를 모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패배선언을 하게 되었다.

2) 現實體驗說 - 물질계와 별도로 정신계가 있다고 하는 二元論

사후의 세계를 틈으로 살짝 본 체험이라고 하고, 임사체험은 영혼의 존재와 사후의 존속을 증명하는 것이다.

연구의 결과 임사체험은 합중국전체에서 800 만인의 성인에게 임사체험이 있었다.(조지 . 갤럽)

죽어간 사람이 소생한 120 인 중 48%가 임사체험을 하고 있었다.(케네스 . 링)

그 결과 임사체험은 만인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표-5, 체외이탈현상의 중요한 특징> : C.T.터트

1	부양하는 것
2	밖에서 자신의 육체를 보는 것
3	밖에 있어서 멀리 떨어진 장소를 생각만 하면 즉시 그것으로 이동하는 것
4	비 물리적인 몸을 수반하고 있는 것
5	그 체험이 꿈이 아닌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

<표-6, 각 연구자가 정리한 공통체험>

	① 레이온 . A . 무디 Jr 박사의 연구
1	체험내용의 표현불가능성
2	죽음의 선고를 듣는다.
3	마음의 평온과 조용함
4	색다른 소음
5	어두운 터널
6	체외이탈
7	타자와의 만남
8	빛과의 만남
9	인생회고
10	삶과 죽음의 경계선과의 만남

11	상환
----	----

② 조지 . 게럽 . Jr 의 연구		③ 케네스 . 링의 연구	
1	육체이탈 26%	1	자기가 죽었다고 하는 주관적 실감
2	정확한 시각 23%	2	평온함과 기분이 좋다고 하는 느낌 60%
3	소리나 목소리가 들린다 17%	3	몸과 분리된 느낌 37%
4	평온함과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32%	4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는 느낌 23%
5	빛의 현상 14%	5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는다 20%
6	일생을 되돌아본다 32%	6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본다 12%
7	저 세상에 있다 32%	7	빛을 본다 16%
8	다른 존재와의 만남 23%	8	아름다운 색깔을 본다.
9	터널체험 9%	9	빛 속에 들어간다 10%
10	예지 6%	10	눈에 보이는 영혼을 만난다 8%

(2) 수웨텐보리의 영계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스웨텐보르그는 자기의 지성보다 하나님의 성령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던 자였다.

스웨텐보르그는 참아버님에 대해서, “하늘의 해와 달의 빛을 총합한 것과 같은 빛 줄을 발하시는 어른이시다.”고 하여 “인간의 두뇌로는 다 판단하기 힘든 스승”이라고 하였다.

이상헌 선생은 스웨텐보르그는 “상당히 체계적이며 조직적인 지성을 가지고 대화하는 분이였다. 하나님의 사랑도 체험하고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분이였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좋은 위치에 계신 분이며 참아버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분이였다. 상당히 오랜 기간을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았기 때문에 영계에 와서도 영안이 밝게 빛나는 분이였다.”는 것이였다.

스웨텐보르그는 스웨덴 사람이다. 자연과학, 수학, 물리학, 철학, 심리학 등 20 가지 학문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남긴 천재인 동시에 거대한 영적능력의 소유자로서도 이름나신 분이다. 1747 년, 모든 과학적 연구의 활동을 포기하고 후 반생의 30 년간은 심령적인 생활과 영계 연구에 몰두하였다. “나는 영계를 탐구하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만이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였다.

- 1) 영이 영원한 존재요 이 세상의 자연계와 별도로 영계란 또 하나의 세계가 존재한다.
- 2) 영계에는 영의 성격의 다양함에 따라서 무수한 단체가 있다. 영들은 모두 자기에게 가장 맞은 단체에 속하여 영원한 생을 보낸다.
- 3) 인간이 죽어서 그 영이 맨 먼저 가는 장소가 정령계이다.
- 4) 영원한 생을 보내는 영계에서는 영은 자신을 속이지 않고 본래의 성격에 돌아가지 않으면 계속 살아갈 수 없다.
- 5) 영계의 태양은 영의 생명과 질서의 기초이다.
- 6) 영계의 태양에서 흘러나오는 영류가 영예의 생명의 원천이다.
- 7) 영계에서는 영적인 인격의 고저라든가 참된 이성의 고저든가 하는 것만이 영의 인격(영격)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 8) 인간계는 영계를 위하여 장래의 영을 산출하기 위한 번식의 자리이다.
- 9) 영계는 시간을 초월한 세계이다.
- 10) 영계의 온 우주보다 넓은 광대무변하다.
- 11) 영계에서 영들에게 진정한 생명과 이성, 행복을 주는 근원은 영계의 태양밖에 없다.
- 12) 인간 때의 생애가 그대로 사후 그가 영원한 생을 보내야 할 세계를 거의 결정한다.
- 13) 영계의 결혼은 영의 자손의 번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남녀 두 영의 영적 결합으로 서로의 영적 행복과 영적이성이나 지혜의 증식을 목적으로 한다.
- 14) 영계와 이 세상은 하나의 금화의 표리이다.
- 15) <하늘의 리>(신)란 것이 이 세상도 저 세상도 포함한 온 세계를 만들어 있는 창조원리요 근본원리이다. <하늘의 리>는 생명, 이성, 애정, 깨닭 등의 모든 선을 산출하는 근본원리요 조화의 원리이다. 영계의 영들의 생명이나 이성의 원천이 되어 있다.
- 16) 영계가 인체와 같이 전체로서 통일된 형태로 되어 있다.
- 17) 천국은 한 사람의 영의 행복은 만인의 영의 행복, 만인의 영의 행복은 한 사람의 영의 행복-그러한 세계이다. 생명, 깨닭, 조화의 세계이다. 연대의 세계이다.
- 18) 천국은 <하늘의 리>를 깨닫고 그에 무구한 신뢰를 기울이고 있는 자의 나라에 불과하다.
- 19) 영의 생활의 목적은 영적 인격의 완성에 있다.
- 20) 영계는 영적 인격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수행의 자리이다.
- 21) 영계는 질서를 가지고 운영되어 있는 세계이다.
- 22) 지옥의 영은 지옥이 자신에 알맞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유스럽게 지옥을 선택해서 거기로 간다.

23) 지옥은 각자의 이기적 욕망의 세계이기 때문에 조화는 있을 수 없고, 분열의 세계가 되어 있다.

(3) 탄바 테츠로(丹波哲郎)의 영계론

탄바 테츠로는 배우, 영화감독, 영계연구가로서 여러 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다. 사후의 세계를 그린 영화 「대영계」를 스스로 제작하여 300 만 명의 관객들을 동원시켰다.

생명이 영원하고 사후의 세계는 확실히 존재한다. 영인(靈人)이란 인간 본래의 모습이다.

영계는 사랑이 주역이다. 영계의 사랑은 바로 영원하다.

저 세상은 하나님이 중심인 것 같다.

자기 바라 주변에 영계가 존재한다.

영계연구는 이미 인류전체의 제일 의무이며, 최고의 과제가 되었다.

1) 사후의 세계를 확신하는 이유

근사(임사)체험자가 증언하는 사후의 세계.

『사자의 책』이 입증하는 이 놀라운 공통성.

2) 영계의 실상을 알게 되면 죽음은 벌써 무섭지 않다.

영계실존을 입증한 과학적 연구.

당신이 영원히 사는 영계의 실상.

영계는 다중구조에 의한 실존이다.

3) 당신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선령이 되는가, 악령이 되는가.

죽은 후에 당황하지 않기 위한 마음가짐.

4) 사후의 운명은 이 세상에서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

죽음의 의식이야말로 영혼불멸의 증거이다.

지금보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4) <행복의 과학>의 영계론

<행복의 과학>은 오오카와 류호(大川隆法) 총재가 말하는 지구적 불법진리를 중심으로 온 인류를 구제하기 위해서 설립된 종교이다.

불교적인 실상관(實相觀)에 의하면 “사후의 세계가 실상의 세계요 이 세상은 일시의 세계”이다.

영계는 닮았던 사람끼리 모여 있는 세계이다.

영계에서는 파괴된 것이 몇 번이라도 원래의 형태로 재현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끝이 없는 영원한 세계, 그 생각이 계속되어 있는 한 존재해 나가는 세계이다.

영계는 완전히 신앙의 편차치에 의한 등굴게 되어 있는 세계이다.

천상계는 하늘을 자유스럽게 날라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한 세계이다. 이에 반하여 지옥계는 밑으로 가면 갈수록 암흑이 점점 짙어지고, 아주 무거운 느낌으로 되어 있다.

사후의 세계에 관한 것은 아직 학문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

어떠한 삶을 살면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는가. 이 문제에 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데가 현재 거의 없다.

나는 많이 靈視하고 있다.

<잘 못된 점>

1) 남녀의 사랑 혹은 부부의 사랑은 법률적으로도 보호되어 있는 배타적 사랑이며 타인의 개입을 허락하지 않는 사랑이다. 사랑 속에서는 독점욕과 같은 것이 있으며 이 독점욕은 타인의 개입을 배제한다고 하는 배타성을 띠고 있다.

2) 불법진리를 위해서 사는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3) 진정한 영원의 사랑, 진정한 불변의 사랑은 부처님의 마음의 체현자로서의 사랑이다. 부처님은 주는 세계에서 오로지 사랑으로서 최대의 <존재의 사랑>으로 빛나고 있다. 부처님은 인류의 아버지요 어머니이기도 한다. 인류의 어버이이다.

3) 부처님이 만든 세계. 즉 삼차원 이후 사차원, 오 차원, 육 차원, 칠 차원 팔 차원의 세계는 시간을 내포한 공간과 그 속을 움직이는 빛이라고 할 수 있다. 「빛」 「공간」 「시간」 - 이 세 가지 요소로 부처님은 세계를 만들고 있다, 천지창조를 하고 있다. 부처님은 이 대우주, 이 광대한 다차원공간도 창출하고 있는 존재이다.

4) 인류의 도표가 진화와 조화로 집약된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진보와 조화, 진화와 조화란 2대 목표를 중심으로 때가 흘러왔다.

5) 9 차원세계는 구세주의 세계이다. 구세주는 석가무니, 예수 . 그리스도, 모세이다. 9 차원 영들 속에서 가장 중심적인 존재는 석가무니로서 인도에 나온 적이 있는 생명체이다. 석가모니의 의식은 거대한 생명체로서 9 차원세계에 있다. 석가모니의 의식의 본체를 9 차원에서는 <엘 . 칸타레의식>라고 한다. 커다란 법의식, 인류를 다스리는 법의 의식으로 석가모니의 의식이 있다.

6) 석가무니는 진두지휘를 하면서 새문명이나 새 문화, 새 시대의 구축을 주된 일로 활동하고 있다. 예수는 지금 천상계의 지휘명령계통을 정리하고 있다. 공자는 현재 인류의 진화계획, 우주 속에서의 인류나 지구의 있는 모습, 그러한 큰 지구계획을 세우고 있다. 모세는 1 억년이상의 역사를 갖는 지옥을 어떻게 해서 해소시키는가에 대해서 책임지고 담당하고 있다.

6) 오오카와 류호 자신이 “절대적 진리(眞如)의 체현자”라고 하였다. 그는 또 “이 책의 초판본을 세상에 낸 이래 행복의 과학은 기적의 대약진을 하였다.”고 주장하여 “이 책의 내용이 9 차원세계의 근원에 위치하는 자 이외는 말할 수 없는 가르침”이라고 하였다.

<표-7, 오오카와 류호의 공간론>

차원		
	인간에게는 모르는 위대한 근본불(根本佛)의 세계	
13 차원세계	대우주의 의식	
12 차원세계	은하계의 의식	
11 차원세계	항성(恒星)의 의식	태양계 세계
10 차원세계	혹성(惑星)의 의식	대일(大日)의 의식-적극성을 관장하고 있고 지구의 진화를 촉진하고 있는 영이다.
		월의 의식-지구의 우미함, 예술성, 윤택, 음의 부분을 관장하고 있다.
		지구의 의식-지구 자체의 생명체
9 차원세계	구세주의 세계 신비적인 세계	9 차원적 존재는 전자파, 에너지체, 의식체이다. 1. 석가무니-황금색광선(가장 중심적인 존재, 석가의 의식의 본체를 <엘.칸타레의 의식>의 의식이라고 한다. 큰 법의 의식, 인류를 다스리는 법의 의식) 2. 예수.그리스도-백색광선(사랑으로서의 빛 <아가사의 의식>, 서로를 사랑한다고 하는 결합시키는 큰 힘의 체현자로서 일하고 있다. 의료계단. 칠대천사 중 사리엘이 약사여래, 에도가.케이시라고 한 적이 있다.) 3. 모세-붉은색광선(지도자, 기적의 광선) 4. 제우스-파랑색광선(문학이나 예술의 광선) 5. 마누-파랑색광선(사상계통, 『마누법전』) 마누-녹색광선(조화) 6. 뉴턴-은색광선(과학, 문명의 근대화의 광선) 7. 조로아스터-녹색광선(중근동의 신, 우주의 구조, 우주의 조화) 8. 공자-보라색광선(예절, 질서) ->일본신도 9. 엔틸-(야훼, 이스라엘의 민족신의 역할) 10. 마이트레야(빛의 프리즘화, 빛의 강도를 조정)
8 차원세계	如來界	기독교적으로는 대천사, 빛의 대지도령. <진녀>, 깨닭의 묘처에서 절대 진리를 체험해서 이 지상에 온

			<p>사람을 말한다. 4 백 수십 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리스테데레스, 비타콜라스, 아르키메데스 2. 공자, 노자 장자 북자 3. 예수.크리스(9 차원존재), 바브테스마의 요한, 에레미아, 엘리아 4. 석가모니불(9 차원존재) <p><빛><공간><시간>이란 세 가지 요소로 부처님은 천지창조를 하고 있다. 이 대우주, 이 광대한 다차원공간도 창출하고 있는 존재이다.</p>
7 차원세계	菩薩의 세계		<p>사랑의 세계-가정 내의 사랑, 부자의 사랑, 남녀의 사랑 등 불법진리를 위해서 사는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p> <p>남녀의 사랑, 부부의 사랑에는 배타성이나 독점욕이 수반한다.</p> <p>참된 영원한 사랑. 참된 불변의 사랑은 부처님의 마음의 체현자로서의 사랑이다. 부처님의 사랑. 부처님은 인류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인류의 아버지이다.</p> <p>자비란 사랑을 초월하는 것이다.</p>
6 차원세계	光明界		<p>생각하는 데로 날 수 있다. 고급영계, <팔백신의 신들>. 성령. 스님, 神主, 교회의 목사들. 학자들이 많다. 의사 변호사, 판사, 정치인, 고급관료, 화가나 음악가 등</p> <p>빛의 바다, 용궁계-바다의 세계. 선인계, 天狗계-산의 세계</p> <p>부처님의 생각을 안다 즉 <지>라는 것이 6 차원의 중핵을 차지하는 생각이다. 진리지식</p>
5 차원세계	善人界	정신계	<p>아직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세계</p> <p>부처님의 자식으로서의 성질의 각성이다. 정신적인 각성.</p>
4 차원	幽界	정령계	<p>지상생활과의 구별이 아직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 靈太陽사랑에 대한 감정의 싹이 든다. <이심전심>의 세계이다.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전해지는 세계. 영계에서의 금후 생활의 일대지침.</p> <p>수용소-지상에서 살아 왔던 것을 반성한다.</p>
		지옥	<p>악한 상념의 소굴</p>
3 차원	지상세계		

(5) 먼로연구소의 영계론

먼로연구소는 1971 년에 로버트 먼로와 그 지원자들에 의해서 설립된 비영리단체이다. 인간의식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로버트 먼로는 라디오방송의 프로듀서로서 활약한 사람이다. 1958 년 42 세 때 최초의 우발적 체외이탈체험을 하고 그것이 그의 그 후의 인생을 크게 변화시키게 되었다.

먼로는 의사나 물리학자, 그리고 기술자 등의 협력을 얻어가지고 헤미싱(腦半球同調)법이란 음향기술을 개발하고, 누구라도 그것을 들으면 여러 가지 변성(變性)의식상태를 체험하도록 하였다. 헤미싱법은 우측 귀와 좌측 귀에 약간 다른 주파수의 소리를 들림으로써 그 주파수의 차이에 상당하는 뇌파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낸다고 하는 방법이다.

헤미싱법은 뇌파를 자유자재로 컨트롤함으로써 듣는 사람의 의식상태를 여러 상태로 가져다준다. -> 숙수, 잠을 깨다, 릴랙스 / 체외이탈 / 사후세계의 탐색

먼로들은 여러 피검자에게 헤미싱 음을 들리면 어떠한 체험을 하는가. 신체적인 반응은 어떠한가를 조사하였다. 피검자는 외계에서 격리된 작은 방 안에 있는 침대에서 잠을 자도록 하고 헤드폰을 통해서 헤미싱을 듣는다.

<헤미싱의 이점>

- 1) 사후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다.
- 2) 객관적인 증거를 모으는 것보다 각자가 직접 체험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 3) 좌선이나 명상처럼 장기적인 수행이나 특수한 훈련이란 것을 알 필요가 없다.
- 4) 먼로연구소는 모든 종교와 무관하다.
- 5) 드러그 등 약물 같은 후유증이 전혀 없다.
- 6) 사후세계를 탐색하는 것 이외도 여러 가지 실용적 목적으로 쓸 수 있다.
 - ①수술을 받는 환자가 사용함으로써 수술 후의 경과를 촉진한다.
 - ②수술 전의 공포심을 진정시키는 등 의학상의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 ③집중력을 높이는 교육상의 효과가 있다.
 - ④각 종류의 훈련에서의 효과 등도 있다.

인간은 육체의 사후에도 계속해서 산다.

사후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 우리의 마음이 결정한다.

먼로는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한다.

우리 의식 레벨의 훨씬 높은 자리 위에 무조건적인 사랑의 원천으로서 창조주가 존재한다고 한다. 여기로의 회귀가 온 인류의 목적이라고 한다. 창조주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데 대해서는 먼로도 모른다. 거기까지의 예지를 얻는 단계에는 도달하고 있지 않다.

우리의 창조주는 ①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 있는 한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고 있다, ②우리도 그 일부로서 참여하고 있는 진행 중의 프로세스에 설계자이다, ③우리의 이해가 미치지 않은 것 같은 것에서도 목적을 가지고 있다, ④위의 프로세스에 있어서 필요에 따라 조절, 미조정을 한다, ⑤만인 만물에 통용되는 단순한 법칙을 정한다, ⑥숭배도 찬미도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⑦ [악]이나 [잘못]을 벌하지 않는다, ⑧우리 인생의 행동에 상관하여 권유하거나 방해하지 않는다.

로버트 먼로가 체험을 통해서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은 ①사후세계의 구조, ②인간의식 구조, ③먼 과거로부터의 의식의 편력, ④우주와 의식의 연관성, ⑤윤회로부터의 졸업 등이었다.

<표-8, 먼로의 포커스 레벨>

포커스	
49	I.T 슈퍼 클러스터(I.T 클러스터(I/There Clubster)의 집합체, I.T 클러스터가 별집처럼 무한히 넓어지는 것 같이 보인다. 자신이 속하는 I.T 클러스터의 가까운 측만 파악이 가능하다.), 은하계 코어와 은하계외우주(국소은하계, 은하단, 초은하단)의 탐색.
45	미라논이란 고차의 의식존재와의 교신. 의식의 레벨(階梯).
42	I.T 클러스터(자신의 I.T 와 결합된 모든 I.T 의 집합체), 태양계와은하계내(가까운 측의 恒星, 星團, 惑星狀星雲 등)의 탐색
34,35	지구생명계에서 앞으로 일어날 big change 를 관측하기 위해서 다른 많은 생명계로부터 많은 異生命體가 이 레벨에 모여 있다.
27	영적으로 진화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 기능에 따라서 받아드리고, 재생, 교육, 계획센터 등이 있다. 사람은 여기까지 와서 처음으로 전생할 수 있다.
24~26	신념체계영역. 공통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 산출한 세계. 그 신념에 적응한 여러 세계가 있다. 서로 속이는 것에 기쁨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모이는 세계나, 서로 強姦하는 세계, 알코올 중독자의 지옥, 의사 천국 등.
23	각자의 생각이 산출한 세계. 그 속에 가두어지면서 벗어나올 수 없다. 幽靈들이 사는 세계.
21	時空의 緣. 물질계와 비 물질계와의 경계. 이 세상과 저 세상과의 경계.
18	heart space. 히링이 가능.
15	무시간의 상태. 과거세 자료에 액세스 가능.
12	의식이 확대된 상태. 오감을 초월한 파악. 가이드와의 교신.

10	몸은 숙수, 의식은 분명한 상태. 체외이탈이 가능. 영상이 보이는 것이 많다.
C 1	각성상태.

* 자신은 육체로부터 독립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일게 되었다. 그 때까지의 물질론적, 유물론적 견해는 완전히 잘못이었다고 알게 되었다.

자신은 혼자가 아니다. 항상 가이드들이 지키고 있다.

* 우주 전체는 하나의 의식, 그 여러 가지의 표출이다.

<표-9 , (지구를 둘러싸는) 세상의 구조>

<u>표면의 세계</u>					<u>뒷면의 세계</u>	
저 세상	36 이상	진정한 원인의 세계 = 신계 = 육체부요				
	35	인간의 본질이 상주하는 곳				
	28~34	원인의 세계	5 차원	극락계	인간계	육체를 간지고 있다.
	27	전생의 포인트				
	23~26		4 차원	유계 (지옥계 등)		
	22	3~4 차원 경계				
이 세상	1~21	결과의 세계	3 차원	현계		선계 육체를 가지고 있다.

7. 맺음말

영계실재와 영계에 관한 말씀, 이상헌 선생의 영계메시지 그리고 기존의 영계론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어들 수가 있었다.

첫째, 하나님이 인간의 몸과 같은 유형실체세계와 마음과 같은 무형실체세계(영계)를 창조하셨다. 피조세계에 있어서의 인간의 위치는

①피조세계의 주관자요, ②피조세계의 매개체요 또한 화동의 중심체요, ③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이다.

둘째, 말씀에 의하면 영계는 하나님을 중심삼은 아담주의 동시에 참부모를 중심삼은 하이어나키 조직이며, 하나님이 사시는 본향 땅이고 모든 것이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으로 짝 찬 조화의 세계이다.

영계에서는 사랑으로 얼마나 인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을 중심삼고 지어 준 피조물을 대할 때 하나님 같이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는 그것이 측정기준이며, 컴퓨터 이상이다.

셋째, 통일사상이 우리에게 주신 근원적 사상이며 영계에서도 참부모님의 사상보다 더 차원 높은 사상이 없다.

이상헌 선생은 “영계인은 지상생활을 터전으로 하여 자기의 삶의 위치가 결정된다.”고 하였고, “자기의 전공분야도 중요하지만 영계의 삶도 연구해야 한다.”고 당부하셨다.

영계에서 통일원리세미나에 참석한 4 대성인과 종교인, 공산주의자, 언론인, 정치가들은 ①하나님이 인류의 부모이시고 전 인류는 한 형제자매이다, ②문선명 선생은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님, 참부모, 평화의 왕이시다, ③통일원리는 인류구원을 위한 평화의 메시지요, 성약시대의 복음서이다, ④천주평화통일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초종교, 초국가, 초인종의 ‘위하여 사는 생활’을 통하여 완성한다, ⑤영계(영원한 세계)는 실존한다고 하는 선언문을 선포하였다.

넷째, 기존의 영계론은 영계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에게 영계의 실재를 증명하는데 다대한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행복의 과학>의 영계론은 ①부처님이 인류의 아버지이다, ②부처님이 이 대우주, 이 광대한 다차원공간도 창출하고 있는 존재이며, 천지창조를 하였다. ③구세주는 석가무니, 예수 . 그리스도, 모세라고 하고, 커다란 범의식, 인류를 다스리는 법의 의식로서 석가모니의 의식이 있다, ④석가무니는 진두지휘를 하면서 새문명이나, 새 문화, 새 시대의 구축을 주된 일로 활동하고 있다. ⑤오오카와 류호 자신이 “절대적 진리(眞如)의 체현자”라고 하였고, “이 책의 내용이 9 차원 세계의 근원에 위치하는 자 이외는 말할 수 없는 가르침”이라고 하였고, “<행복의 과학>은 영계론을 통해서 기적의 대약진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⑥가장 차원 높은 세계가 인간에게 모르는 위대한 근본불(根本佛)의 세계라고 하였다.

하나님이 인류의 부모이시고 천지창조를 하셨다. 석가무니나 모세는 구세주가 아니라 구세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지만 문선명 선생에게 그 사명을 인계하셨다. 문선생만이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님, 참부모, 천주평화의 왕이신 것을 지상에서도 영계에서도 공인하고 있다.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의 말씀으로 볼 때 <행복의 과학>의 영계론은 민심을 혼란에 빠지도록 하는 위험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